

오토바이 단속기간 사망사고 되레 늘어

단속 연장 광주경찰 고민...실질적 대책마련 필요

운전자 예방교육·계도 활동 병행 실시 지적도

광주 경찰이 최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경찰은 여름철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사망 사고가 늘어나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75일간 보호 장비 미착용·난폭운전·인도주행 및 보행 방해·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뒤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4일간 단속을 할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오토바이 운전자 급증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속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오

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모두 1517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5명보다 무려 1172명(4.39배) 많은 수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에 오토바이 사망자가 오히려 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지난달 28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모(48)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지는 등 단속기간 중 오토바이 사망자 수만 모두 7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명에 비해 4명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선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속에만 의지해선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무면허·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자와 배달업체 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예방교육 등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이면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끊이지 않는 데,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며 “단속과 계도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6월 30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는 총 3만8293대다. 구별로는 ▲동구 4453대 ▲서구 6920대 ▲남구 5829대 ▲북구 1만4041대 ▲광산구 7050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1 몰림 21:36
해질 19:23 날짐 09:37

중일 지방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30mm.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1/25	보성	비	21/24
목포	비	21/25	순천	비	22/25
여수	비	22/24	영광	비	20/23
나주	비	21/25	진도	비	22/25
완도	비	22/25	전주	비	20/26
구례	비	21/25	군산	비	20/23
강진	비	22/25	남원	비	19/25
해남	비	22/25	속산도	비	21/24
장성	비	20/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0.5	북동~동	0.5~0.5
남해	서부	북~북동	0.5~1.0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9:45	04:41
	22:00	17:00
여수	11:31	05:14
	23:52	17:26

◇생활지수

- 식중독 42
- 운동 10
- 빨래 20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	☁	☁	☁	☁	☁	☁
21/28	22/29	21/27	22/25	22/26	21/27	21/28



추석 열차표 예매 시작 호남선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역 출입구에 표를 사려는 이들이 줄을 길게 늘여선 차 차레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미혼남녀 맞선 본다

시·인구보건협, 올 가을 공무원·교사 등 '행복만남' 추진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짝짓기 프로그램 '애정촌'처럼 미혼남녀를 연결해주는 '맞선' 행사가 올 가을 광주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맞선' 행사가 올 가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공무원·교사 등 '행복만남'이 바로 그것. 13일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오는 11월께 광주지역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들어가 본선을 통과한 32명(16쌍)을 대상으로 '행복 만남'이 열린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맞선'에는 그동안 공무원, 교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가했으며, 참가 지원은 광주에 살고 있는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평균 100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1차 심사를 통과한 남녀만 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광주 지역 호텔 연회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지

만, 참가자 모집이 끝난 뒤 일정을 조율해 장소와 날짜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맞선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사회 아래 ▲자기소개 ▲자기자랑 ▲게임 등 하루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다가 행사 막바지에 최종 선택을 통해 마음이 통한 남녀끼리 짝을 맺게 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행사에서 만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도 있고 행사에서는 연결이 안 됐지만 여심을 사로잡는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잖게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062-670-407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타까운 독립유공자 4586인 훈포장

후손들 못 찾아 전달 못하고 보훈처에 보관중

순국선열이 죽음을 찾은 조국의 광복이 70주년을 한해 앞둔 지금도 독립유공자 4586인에 추서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가보훈처에 보관돼 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을 받은 이는 대한민국장을 비롯해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을 합해 건국훈장 9922, 건국포장 1048명, 대통령 표창 2539명 등 모두 1만3509명. 그 훈포장의 3분의 1이 이미 고인이 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지 못해 '미전수' 상태인 셈이다. /연합뉴스

후손은 못 찾는데 새롭게 인정된 유공자가 늘어나며 미전수 훈포장자 수가 2005년 2446명보다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년간 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후손 스스로 유공자의 유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이 원장은 “유족이 사실증명을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후손 대부분이 선대의 유공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새마을금고 여직원의 '기지'로

70대 노인 수천만원 금융사기 피해 막아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순간 '기지'를 발휘해 사기꾼의 꾀에 넘어간 70대 노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13일 서양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본점(남구 서동)에 근무하는 여직원 고미영(33)과 장이 '사이버 경찰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 70대 노인을 설득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고객 손모(74)씨가 “귀하의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문자에 담긴 계좌로 모든 예금을 빨리 송금하라”는 사기꾼의 전화를 받

고 금융창구로 찾아온 시각은 지난 12일 정오께. 고 과장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이는 손씨로부터 예금 3000만원을 낚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객을 안정시키던 중 재차 걸려온 사기꾼의 전화를 넘겨받아 추궁한 끝에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칼(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정
EHC필링
수술
청각학 석사
상무점

지멘스 상무점
약영남5층 501호
동행(보청기점)
아바들교차로

대상 Wellife
www.Wellife.co.kr

뉴케어와 함께 성장할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대상웰라이프는 환자 및 노약자의 영양상태 개선 및 빠른 회복을 도우려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인 '뉴케어'를 병원에 공급해온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리점주가 되시면 마케팅 전략에 따른 영업교육 및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드리며, 운영 관리를 위한 자세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뉴케어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대리점 모집 공고

모집부서	병원유통 대리점	이메일주소	muwhan@daesang.com / 010-6336-1192 (채용담당자)
영업지역	광주/전남/전북 및 대전/충북/충남	우편주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70 대성빌딩 5층 웰라이프 뉴트리션팀 앞
지원요건	· 해당지역의 병원영업 가능하신분 · 제1차 혹은 의약품도매업, 병원 영업경력자 우대 · 제품 영업에 전력을 기울이실 수 있는 분(우선대상)	채용기한	채용시까지
영업지역	이러서, 소계서(경북중심), 사업지등록증(해당지역에 한함)	면담	서류검토 후 개별통보 예정
		문의사항	· [광주/전남/전북] 여인형 대리 : 010-8438-8044 / 062-943-9531 · [대전/충북/충남] 김형실 과장 : 010-3112-2110 / 042-626-9966

대상주식회사 웰라이프사업본부